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이견희 컬렉션 전시 등 화제를 모으는 3개의 대형 전시가 1일 동시에 개막한다. 사진은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목포 문예회관 전시장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인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가을, 예향으로 떠나는 예술여행

올 가을, 광주 전남으로 떠나는 예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예술 축제가 1일 동시 개막한다.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견희 컬렉션을 만나는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의 특별전도 같은 날 오픈,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전한다. 이번 전시들은 VR 전시관 등을 통해 행사장을 직접 찾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관련기사 16면>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61일간 대장정을 이어간다. 이번 행사의 전시주제 '다-레볼루션'은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늘 동시 개막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 오픈

열리는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과 감성의 의미있는 콜라보를 디자인을 통해 제시하며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개 국가 421명의 작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인다. 행사는 주제관, 국제관, 인공지능관, 체험관, 지역산업관으로 구성된 5개의 본전시실을 비롯해 특별전(1개), 기념전(2개) 등의 전시 행사와 ▲국제 학술행사 ▲온-오프라인 마켓 ▲디자인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1일 오후 7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홍보대사 알렉사 등이 참석하며, 광주시립합창단 공연,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파사드' 공연 등이 펼쳐진다. 올해 2화제를 맞은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역시 1일 메인 전시장인 목포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31일까지 이어진다.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목포 문예회관, 운림산방 등 목포와 진도 6개 주 전시관과 4개 특별전시관, 15개 기념전시관 등 광양, 여수, 해남, 보성 등 전남도 전역으로 전시 공간을 확대했다.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에는 국내외 15개 국가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또 수목 패션쇼와 노을 콘서트, 수목 퍼포먼스, 나도 수목작가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1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견희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시가 시작된다. 11월 7일까지 이어지는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 전에는 김환기·천경자·오지호·임직순 등 4명의 지역 작가와 유영국·박대성·김은호·유강열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장식한 거장 등 모두 8명의 작품 19점이 나왔다. 지난 4월 기증받은 21점의 작품 중 허백련 화백의 2점은 작품 상태를 고려해 차기 소장품 전시회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3.1조, 전남 7.5조 ...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반영

올해 대비 13.8%·4.7% 증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3조원, 7조5000억원 이상을 각각 반영했다. 미래 신성장 동력과 신규 도로·철도 등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

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국회 방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3, 9면>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은 3조1457억원(358건)이다. 신규 사업 1172억원(80건), 계속 사업 3조285억원(278건)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3819억원(13.8%) 늘어난 것이다. 이번 국비 반영액 3조원 돌파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공지능,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등 대규모 미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의 정부예산 반영액은 민선 7기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 정부 예산 반영액은 2018년 1조 7803억원, 2019년 2조149억원, 2020년 2조4250억원, 2021년 2조7638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등 전남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대거 정부 예산에 반영시켰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에 SOC,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국비 7조51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7조1782억원)보다 3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각 정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재정당국을 집중 방문해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5억원을 반영해 1조원대에 달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바이오·백신산업 분야는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14억원, 전남도가 기획해 건의한 남부권광역관광개발기반계획 수립용역 10억원 등도 반영했다. 전남도는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퀵' 부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건설 사업비는 내년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라선 고속철도건설,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속히 선정되도록 강력 권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 '환영'

여야는 지난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 끝에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오는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합의안을 두고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합의안을 "사실상 추진했다"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약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전남, 반려동물 등록·중성화 수술 저조 ▶6면

월드컵 예선 이라크전 - 손흥민이 왔다 ▶18면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와 비제의 '카르멘'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EQ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4.1 | 도상: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306, 공차중량(kg): 1995, 배터리 용량(kWh): 66.5

※ EOA 25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 | 도상: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306, 공차중량(kg): 1995, 배터리 용량(kWh):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허서도 상, 오진 방법, 차량 차폐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